

Today's News Clip

# 오늘의 주요기사

2024년 1월 19일 금요일

새로운 강원

행복한 미래

함께 여는 강원특별자치도 의회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 목 차

<b>강원도민일보</b>	04면	"강원도민 한마음 성공개최 이뤄내자"	1
<b>江原日報</b>		횡성 6개 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1/2]	2
<b>江原日報</b>	06면	강원 정치권 "동계청소년올림픽 전폭 지원"	3
<b>스포츠서울</b>	온라인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2024강원동...	4
<b>江原日報</b>	온라인	[강원2024] 강원 정치권 "안전한 올림픽, 국민 화합의 장 ...	5
<b>江原日報</b>	27면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오늘 우호 협력 합의 체결	6
<b>B 동방일보</b>	10면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교류 합의서 ...	6
쿠키뉴스	온라인	강원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7
<b>강원도민일보</b>	16면	화천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8
<b>江原日報</b>	22면	화천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8
<b>江原日報</b>	19면	농업인대학 피망반 입학식	8
<b>江原日報</b>	27면	"비슷한 지리적 환경 바탕 협력 재난·재해 최소화"	9
<b>江原日報</b>	27면	요양기관 인프라·종사자 처우 개선 최선	9
<b>강원도민일보</b>	12면	[동정] 심오섭(원쪽) 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장·최승순 ...	10
<b>강원도민일보</b>	11면	[동정] 전찬성(원주) 도의원	10
<b>강원도민일보</b>	12면	[동정] 박호균 도의원	10
<b>강원도민일보</b>	17면	[동정] 김용복(고성)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10
<b>강원도민일보</b>	17면	[동정] 강정호(속초) 도의원	10
<b>강원도민일보</b>	01면	강원2024 오늘 개막, 전세계 미래 빛난다	11
<b>江原日報</b>	01면	지구촌 청소년 대제전 ... 14일간 '강원의 겨울' 수놓는다	12
<b>강원도민일보</b>	01면	세계 청소년 한자리에	13
<b>강원도민일보</b>	02면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 메시지...디지털 성화로 축제 점화	13
<b>江原日報</b>	02면	"올림픽이란 우주 속 서로의 빛이 되어 함께 빛나는 우리"	14
<b>강원도민일보</b>	02면	시상대 국가·치킨·포상·연합팀 경기 '없는 올림픽'	14
<b>강원도민일보</b>	03면	김 지사 올림픽 일정 돌입... 각국에 강원 홍보	15
<b>강원도민일보</b>	03면	'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5
<b>강원도민일보</b>	04면	스포츠로 밝힌 '희망의 빛' 전쟁 아픔 이겨내고 꿈 펼친다	16

<b>江原日報</b>	02면	기후위기 전시부터 국악·현대무용 만남까지... 예술로 하나 ...	16
<b>강원도민일보</b>	04면	루키에서 챔피언 등극 '청소년 올림픽' 길을 닦다	17
<b>강원도민일보</b>	07면	강원 경제계 올림픽 붐업 조성 뚝뚝 뭉쳤다	18
<b>강원도민일보</b>	12면	"강릉에 오신 선수단·관광객 환영합니다"	18
<b>강원도민일보</b>	11면	원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본격 행보	19
<b>강원도민일보</b>	12면	시 바이오 국가산단·스포츠타운 현안사업 속도	19
<b>강원도민일보</b>	13면	삼척지역 4곳 생활문화센터 건립 박차	20
<b>강원도민일보</b>	13면	동해시보훈복지회관 신축 국비 추가 확보 '탄력'	20
<b>江原日報</b>	05면	국보 수마노탑 '낙서 테러' 몸살	21
<b>江原日報</b>	17면	원주지역 아동·어린이 인프라 확충	21
<b>江原日報</b>	04면	폭설 뒤 한파 예보 ... 변수 떠오른 날씨	22
<b>강원도민일보</b>	19면	[사설] 대졸자 수도권 이탈 대책 모색을	23
<b>강원도민일보</b>	19면	[사설] 환대하는 글로벌축제 한마당으로	24
<b>江原日報</b>	25면	[사설]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응원·협력·화합하자	25
<b>江原日報</b>	25면	[사설] 道 대학 졸업생 유출 전국 최고, 대책 마련해야	26

## “강원도민 한마음 성공개최 이뤄내자”

인터뷰 | 권혁열 도의장

개최지 올림픽 특수 기대  
도의회 지원 끝까지 최선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2024강원동계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도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성공개최를 이뤄내자”고 밝혔다.

권 의장은 18일 “아시아권 최초로 강원도가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번 올림픽은 세계 각국의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와 강원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라며 “지난 2018년 평창동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냈듯, 이번 청소년 올림픽도 반드시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장은 “2018년 올림픽 당시 지었던 빙상 경기장을 이번 올림픽을 통해 다시 활용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선수와 관광객들이 강릉, 평창, 횡성,



정선 등 개최지 시·군·구 곳곳의 아름다움을 느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지역 주민들이 ‘올림픽 특수’를 경험하며, 침체된 경기가 살아나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강원도의회는 지난 2022년 10월 올림픽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해왔다. 권 의장은 “특위 위원들이 홍보에 힘써왔다”며 “대회가 끝날 때까지 도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해내겠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공직자들의 오랜 노력으로 개막까지 왔고, 대회 자원봉사자들이 곳곳에 배치돼 세계 손님들을 맞고 있어 고마운 마음”이라며 “대회 성공 개최를 통해 모두가 보람을 느끼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설화

2024 01 18 ( )

## 江原日報

## 횡성 6개 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6개 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이 18일 횡성향교 웨딩홀에서 열렸다.

횡성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남.여대장:정대용.김영숙)가 18일 향교 웨딩홀에서 2024년 1분기 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공근남성의소대 김대섭, 서원여성의소대 김현주, 서원의소대 유현지역대 조기현, 둔내산악전문의소대 김진선, 청일남성의소대 안동국, 강림여성의소대 허정민 대장이 취임했다.

또 이용기(공근) 대장, 권선녀(서원)대장, 최광서(유현)대장, 전영길(둔내산악) 대장, 박원서(청일) 대장, 김성미(강림)대장 등 전임 대장들이 임기를 마쳤다.

이.취임식에서는 이임 대장 공로패 및 감사패 수여, 임명장 수여, 내빈 축사, 기념 촬영 및 축하 케이크 자르기 등이 진행됐다.

박순걸 횡성소방서장은 "생업과 의용소방대 활동을 병행하며 늘 주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동분서주하는 지역 의용소방대원들께 감사하며, 올해도 소방서와 유기적인 협력 체제로 안전한 횡성을 만들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명기 군수, 김영숙 군의장과 표한상 부의장, 김은숙.백오인.유병화.정운현.박승남 군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경녀 횡성교육장, 엄경익 횡성축협조합장, 함종국 강원도정협력관 등 내빈과 박순걸 횡성소방서장, 연합회 임원, 대원, 가족 등 200여명이 참석해 축하했다.



횡성군의용소방대연합회 6개 의용소방대 대장 이.취임식이 18일 횡성향교 웨딩홀에서 열렸다. 사진은 내빈과 신임 및 이임 대장 기념 촬영.

2024 01 19 ( )

06

# 江原日報

## 강원 정치권 “동계청소년올림픽 전폭 지원”



국민의힘·민주당 한목소리  
“尹정부 유일 메가 국제스포츠  
김진태 도정과 긴밀히 협력”

“2018평창 유산 계승에 주목  
원내 1당으로 성공 개최 지원”

강원 정치권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안전한 올림픽을 치러 강원 자치도를 동계스포츠 중심지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8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날 ‘올림픽 성공 개최, 특별 자치도 도약 발판 삼는다’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유일한 메가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대회 개최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성공 개최를 위해 김진태 도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안전 올림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동계스포츠와 겨울 관광의 메카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는 것이 만큼 이번 대회가 ‘통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당원의 뜻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올림픽은 6년 전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도당은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강원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강원자치도와 올림픽 조직위 등은 참가 선수들은 물론 운영 인력들이 안전한 가운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원자치도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내 제1당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막 당일인 19일 대선포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속한 제설과 도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기영(국민의힘·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18일 자료를 내고 “개회식에 참석하는 관객들의 교통안전에 대한 제설작업과 경기장 주변의 도로 제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올림픽 관련 행사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많은 관광객이 강원자치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 도로 사고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2024 01 18 ( )

## 스포츠서울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제설 및 안전대책 에 만전을 기해



박기영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스포츠서울 춘천=김기원기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박기영 안전건설위원장(춘천3, 국민의힘)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식 당일인 1월 19일에 대설특보 가능성이 예보된 가운데 “안전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만이 성공개최의 사활적인 근거”라며 “신속한 제설 및 도로 안전에 대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강원지방기상청 예보에 의하면, 금요일인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중.북부 동해안 2~7, 산지 5~10 의 눈이 내려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보도를 제시하면서 “특히 올림픽이 개최되는 영동권역에 집중된다고 하니 참으로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개회식에 참석하는 관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제설작업과 경기장 주변의 도로 제설 및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평창돔과 횡성·정선의 문화행사와 올림픽 관련 행사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도 함께 당부했다.

특히 “올림픽 관람을 위해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를 찾아주시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내 고속도로, 국도·국지도 등 빙판길 도로 사고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강조했다.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자료에 의하면 2020년 2022년 최근 3년간 강원특별자치도 내 교통사고는 20년 7,039건, 21년 6,605건, 22년 6,425건으로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나 빙판길 교통사고 건수는 각각 60건, 99건, 62건으로 상대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빙판길 교통사고는 총 221건 중 12월, 1월에 142건으로 전체 64%가 집중되어 있다.

acdck4021@sportsseoul.com

2024 01 18 ( )

## 江原日報

## [강원2024] 강원 정치권 “안전한 올림픽, 국민 화합의 장 되길”

국민의힘.민주당 강원 잇따라 성공 기원 메시지  
제설과 안전대책에 만전 기해야 한다는 촉구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막식과 빙상경기가 열리는 강릉올림픽파크 내에 지난 16일 대회 자원봉사자와 운영인력 등이 경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은 19일 개막해 2월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열린다. 강원일보 DB.

강원 정치권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여야 할 것 없이 안전한 올림픽을 치러 강원자치도를 동계 스포츠 중심지로 만들자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당은 18일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의 힘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도당은 이날 ‘올림픽 성공 개최, 특별자치도 도약 발판 삼는다’는 논평을 내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 유일한 메가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대회 개최 자체의 의미가 매우 크다”며 “성공 개최를 위해 김진태 도정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한편 안전 올림픽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도가 아시아는 물론 세계적인 동계 스포츠와 겨울 관광의 메카로 확고한 입지를 굳히는 것인 만큼 이번 대회가 ‘통쾌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모든 당원들의 뜻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도당도 ‘올림픽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라는 논평을 통해 “이번 올림픽은 6년 전 평화올림픽으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을 계승한다는 점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평했다. 도당은 “전 세계 청소년 선수들이 강원자치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마음껏 기량을 뽐낼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강원자치도와 올림픽 조직위 등은 참가 선수들은 물론 운영 인력들이 안전한 가운데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강원자치도가 아시아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내 제1당으로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막 당일인 19일 대설특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신속한 제설과 도로 안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기영(국민의힘.춘천) 도의회 안전건설위원장은 18일 자료를 내고 “개회식에 참석하는 관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제설작업과 경기장 주변의 도로 제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올림픽 관련 행사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조했다. 특히 박 위원장은 “많은 관광객들이 강원자치도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빙판길 도로 사고에 대해서도 선제 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 江原日報

2024 01 19 ( )

27

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오늘 우호 협력 합의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최근 해외 의회 등과 우호 협력 관계를 구축, 활발한 교류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몽골 튜브도의회와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를 체결한다. 몽골 튜브도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 대회 성공 개최를 응원하고, 양 지역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했다. 도의회는 튜브도가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유사해 교류를 통한 이점이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의회 안전건설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요코하마시의회 등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일본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선진 재난방재 시스템 벤치마킹을 고민했다. 이현정기자

2024 01 19 ( )

10

 동방일보

## 강원특별자치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 몽골 튜브도와 의회차원의 교류협약 최초 체결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 권혁열)는 1.19.(금)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카리브3홀)에서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다.

몽골 튜브도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

올림픽 대회 기간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11명의 대표단이 강원특별자치도를 방문하였다.

권혁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은“강원특별자치도와 튜브도는 지난 1999년 우호교류를 체결하고, 2003년에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래 지금까지 20년간 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고 알차게 추진해 오고 있었다.”면서 이번 의회 차원에서의 상호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을 통해 몽골과의 교류를 더욱 깊게 이어가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튜브도는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는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와 유사한 점이 많은 곳으로, 지리적 이점과 관광자원을 활용한 양 지역 간의 교류 확대와 상호 방문을 통한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 양 도간의 주민생활과 경제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도경 기자 dongbangmedia@naver.com

2024 01 18 ( )

## 강원도의회-몽골 튜브도의회,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

하중천



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오는 19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몽골 튜브도의회와 우호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합의를 체결한다고 18일 밝혔다.

몽골 튜브도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 기간 성공개최를 응원하고 양 지역 간 교류협력 강화를 위해 대표단 11명이 강원도를 방문한다.

양측은 경제, 무역, 예술, 문화, 관광,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기업의 협력 및 교류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권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상호 우호교류 합의서 체결을 통해 몽골과의 교류를 깊게 이어가게 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지난 1999년 이후 현재까지 몽골 튜브도의회와 교류협력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하중천 기자 ha33@kukinews.com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16



**화천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제64차 화천군 재향군인회 정기총회가 18일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에서 최문순 화천군수, 김덕희 화천군 재향군인회장, 홍만기 강원도 재향군인회 해병부회장, 박대현 도의원, 이선희 부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각종 보훈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江原日報

2024 01 19 ( )

22



**화천군재향군인회 정기총회** 화천군재향군인회(회장:김덕희) 정기총회 및 기념행사가 18일 화천국민문화체육센터 회의실에서 최문순 군수, 박대현 도의원, 이선희 군의회 부의장, 홍만기 도재향군인회 해병부회장 등 기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江原日報

2024 01 19 ( )

19



**농업인대학 피망반 입학식** 제16기 고성군 농업인대학 피망반 입학식이 18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에서 함명준 군수, 김일용 군의장, 김용복 도의회 농림수산위원장, 입학생 4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江原日報

## “비슷한 지리적 환경 바탕 협력 재난·재해 최소화”

강원연구원-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 컨퍼런스  
양국 해안 침식 지진·해일 산불진화 등 교류 논의

강원특별자치도와 일본 홋카이도가 유사한 지리적 환경 등을 바탕으로 협력해 재난·재해를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원연구원이 18일 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와 공동으로 연구원 리버티홀에서 개최한 한일컨퍼런스의 주제 발표자로 나선 김경남 연구위원은 “일본 홋카이도는 55% 이상이 국유림이고 올림픽 이후 산림 복원이 이뤄졌다는 점, 주민생활과 관련한 특례를 발굴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양국이 해안침식, 지진·해일, 산사태,

산불진화 등의 분야에서 연구 교류할 지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는 “최근 일본의 지진으로 동해 묵호항의 경우 1m가 넘는 해일이 발생해 지자체에서 긴장을 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주민들에게 외부 활동 자제를 당부하는 것 외에 대응 체계가 없었다”며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원에서 체계적인 연구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산불 피해 복원 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원 방법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원연구원-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 간 한일 컨퍼런스가 18일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코타카 소우 북해도총연 이사장,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최병수 강원일보 전무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불방재와 해양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열렸다. 신세희기자

강원자치도에 산불 진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한 김길수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은 “일본의 산불 진화 사례 등을 참고, AI를 활용해 산불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야간에도 진화할 수 있는 헬기 운영 등에 대해 고

민해 달라”고 말했다. 이날 컨퍼런스는 강원연구원이 지난해 9월 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를 방문, 상호교류 협력의 정례화를 논의한 후 마련됐다. 연구원은 이날 워크숍을 갖고 연구교류 주제와 향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컨퍼런스에는 현진권 강원연구원장, 코타카 소우 북해도립총합연구기구 이사장, 허장현 강원테크노파크 원장, 김중재 강원연구원 자원경제팀장, 윤인재 정책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이현정기자 together@

# 江原日報

## 요양기관 인프라·종사자 처우 개선 최선

한노협 강원지부 정기총회  
김명자씨 등 공로패 전달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이하 한노협) 강원지부 정기총회가 1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총회는 개회사, 축사를 시작으로 노인장기요양의 발전을 위해 애써온 김명자(노블레스 요양원), 박용춘(다금요양원), 안병욱(원주중앙요양원) 씨에 대한 공로패 전달식 등으로 진행됐다. 또 요양기관의 구인난 해결과 종사자들의 장기근속 장려금, 경력 인정제 등 종사자 처우 개선 정책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간도 함께 마련됐다. 이어 ‘2023년 주요업무 현황보고’, ‘감사보고’ 등을 진



◇(사)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강원지부(회장: 장효진)는 18일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4년도 제15회 한노협 강원지부 정기총회’를 진행했다.

행한 뒤, 김수철 한노협 정선지회장이 ‘2024년 총회 역량강화’를 위한 강의를 진행했다.

장효진 한노협 강원지회장은 “갑진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장기요양 현장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시점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인프라 확충,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력 부족 및 처우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제도적 개선을 위해 지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는 이경희 도 보건복지국장, 육동한 춘천시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박원 한노협 회장, 홍기종 도사회복지협의회장, 홍영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등을 비롯한 종사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김민희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12

제26·27대 회장 이·  
취임식에참석한다.



심오섭(왼쪽)도의회  
사회문화위 부위원  
장·최승순 도의원은  
20일 오후 3시강릉농  
협 4층에서 열리는강  
릉고등학교 총동문회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11



전찬성(원  
주)도의원  
은19일오  
후 8시 강  
릉스피드  
스케이팅 경기장에서  
열리는2024강원대회  
개회식에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12



박호균도  
의원은19  
일 오후 8  
시강릉스  
피드스케

이팅 경기장에서 열리  
는 2024 강원동계청  
소년올림픽대회개회  
식에 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17



김용복(고  
성) 도의  
회농림수  
산위원장은19일오

후8시강릉스피드스  
케이팅 경기장에서 열  
리는 2024강원대회  
개회식에참석한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17



강정호(속  
초) 도의  
원은19일  
오전 11시  
속초시청

에서 열리는속초시행  
정동우회 회장 이·취  
임식에참석한다.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1

## 강원2024 오늘 개막, 전세계 미래 빛난다

G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오늘 강릉·평창 동시 개최식

2018평창올림픽 시설 활용

내달 1일까지 14일간 열전

79개 나라 선수 1803명 참가

전 세계 청소년 스포츠 축제인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강원 2024)가 오늘 성화 불꽃을 밝히고 14일간 차세대 스타들을 위한 꿈의 무대로 펼쳐진다. 6년 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 2018 평창 동계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문화자산을 내보이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2024'는 19일 오후 8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 불꽃을 밝힌다.

강릉에서는 9000여명, 평창에서는 4000여명 관중들이 함께한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이번 대회는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14일간 강릉과 평창, 정선, 횡성 4개 시군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자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의 경기 시설을 활용해 강원도에서 두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으로서 79개국에서 선수 1803

명이 참가한다.

역대 동계 청소년 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열려 박진감 넘치는 경기 외에 다양한 볼거리가 현장을 수놓는다.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 평창돔에서 이원으로 진행되는 개최식은 한국의 문화에 15~18세 선수만 출전하는 대회의 특성이 어우러져 축제의 시작을 알린다. '우리 함께 빛나자' (Let us Shine)는 주제의 개최식은 '우주' (The Universe) 안에서 청소년들이 자신 안에 빛나는 별 '소우주'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 동계 스포츠의 전설과 꿈나무들이 서로 올림픽 성화를 주고받으며 14일간 불타오를 대회 성화를 점화한다. 청소년 올림픽은 국가별 경쟁보다 정

소년들의 참여, 문화와 함께하는 행사로 열리는 만큼 강원2024도 대회 기간 동안 개최지 4개 시군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를 열어 대회를 찾은 국내외 관람객들에게 'K-컬처'의 저력과 함께 즐거움을 선사한다. 국립현대무용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 국립발레단, 강원도립무용단 등 국공립 예술단체가 문화예술 공연을 펼치고, 개최지 4개 시군 내 5개 페스티벌 사이트에서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연과 전시, 체험 행사를 운영한다.

유인촌 장관은 "강원2024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석 ▶관련기사 2·5·7·12·15·19·21·24·25면

2024 01 19 ( )

# 江原日報

01

## 지구촌 청소년 대제전 ... 14일간 '강원의 겨울' 수놓는다

'동계청소년올림픽' 오늘 오후 8시 강릉·평창서 개최식  
아시아 첫 개최 ... 명실상부 국제 동계스포츠 중심 부상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

전 세계 청소년들의 '꿈의 대제전'이자 '성장 드라마'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9일 개막한다. 이날 오후 8시 강릉 오벌(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동의 이원 개최식을 시작으로 14일간 열전이 펼쳐진다. 세계 청소년들의 스포츠 축제인 '강원2024'는 올 2월1일까지 강릉·평창·정선·횡성 등 4개 시·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에선 15개 종목 81개 메달을 놓고 79개국 15~18세 선수 1,803명이 실력을 겨룬다.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되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과 동계청소년올림픽을 연이어 개최하며 올림픽 역사에 새로운 선례를 남기게 된다. 아시아 최초 동계올림픽 그랜드슬램 달성으로 강원도는 명실상부한 국제 동계스포츠의 중심으로 부상한다.

개회식에는 1만3,000여명의 관람객(강릉 9,000명, 평창 4,000명)이 몰릴 전망이다. 대회 기간 목표 관람객은 25만명, 경기티켓은 34만장가

량이 예매됐다. 개회식 주제는 '우리 함께 빛나자(Let us Shine)'이다. 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밴드팀 '틴즈'와 '엠비큐어스댄스컴퍼니'가 공연을 펼친다. 내 안의 빛나는 별, 소우주를 발견하며 성장하는 이야기를 보여준다. 올림픽을 밝힐 성화는 올림픽 사상 최초로 첨단 LED큐브를 활용한 '디지털'로 점화된다.

성화 봉송 첫 주자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킨레톤 금메달리스트 윤상빈으로 올림픽의 불꽃이 평창동에서 강릉 오벌로 순식간에 옮겨지는 장면을 연출한다. 이어 쇼트트랙 지적발달장애 부문 유망주 박하은·가은 자매, 2014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금메달리스트 박승희를 거쳐 이번 대회에서 프리스타일 스키에 출전하는 이정민이 최종 주자로 나선다.

대회 기간 강릉·평창·횡성·정선의 배뉴에서는 다양한 문화행사, 올림픽 페스티벌이 열리며 국공립 예술단체의 수준 높은 공연도 펼쳐진다.

김진태 강원자치도지사는 "우리 나라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올림픽이자 아시아 최초의 청소년올림픽"이라며 "대회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으며 강원자치도에서 두 번의 올림픽을 치러냈다는 자부심이 도민들에게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종구 강원2024 조직위 대표위원장은 "이번 대회는 평창2018의 유산을 바탕으로 개최되며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 K-컬처의 매력을 보여주는 문화올림픽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강원2024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다양한 국가와 인종의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대회를 찾는 모두가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축제를 즐기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원2024취재단=최기영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1



세계 청소년 한자리에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강릉올림픽파크 컬링장에서 브라질 선수들이 방송 관련 녹화를 하고 있다. 김정호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2

## “우리 모두 소중한 존재” 메시지…디지털 성화로 축제 점화

### 미리 보는 개회식

강원 소녀 우주 여행기 콘셉트 스포츠 전설·셋별 성화 주자로 화사·비와이 등 케이팝 공연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은 ‘우리 함께 빛나자(Letus Shine)’를 주제로,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로 꾸며진다. 19일 오후 8시 시작되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은 강릉과 평창 두 곳에서 열린다. 평창에서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오발) 개회식이 이원으로 중계된다.

### ■개회식

개회식의 배경은 ‘우주’(Universe)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빛이 어우러지는 우주를 배경으로 우리는 모두 빛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라는 점을 메시지로 담았다. 인간 속에는 거대한 우주가 담겨 있고,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를 하루 앞둔 18일 평창동계체육관에서 평창 개회식 사전리허설을 하고 있다. 김정호

개회식은 한국 교복 모티브의 의상을 입은 학생들이 등장해 춤으로 청소년들의 열망을 표현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 소개, 국기 게양, 인사말 등이 진행된다. 이어진 공연에선 강원 소녀 ‘우리’가 아이스 고블린(얼

### ■성화

또 다른 불거리는 디지털 성화다. 개회식의 ‘꽃’인 성화는 디지털 성화로 구

현된다. 점화식은 평창에서 출발한 성화주자가 강릉 개회식장에 등장하는 것으로 시작돼, 최종 점화자가 성화대에 불을 밝히면 경기장 밖 디지털 성화도 함께 점화된다. 디지털 성화는 올림픽까지 중 하나인 ‘지속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 채택됐다. 14일 대회기간 동

안 성화 유지에 필요한 가스를 사용하지 않기 위함이다. 실시간 날씨 데이터를 적용해 현장감을 가미할 예정이다.

### ■성화 마지막 주자 이정민 선수

한국동계스포츠의 전설과 신인들이 서로 올림픽 성화를 주고받으며 점화한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키레톤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윤성빈 전 선수가 첫 번째 주자다. 쇼트트랙-지적발달장에 부문 유망주인 박하은·박기은 자매, 2014 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금메달리스트인 박승희 전 선수가 이어받는다. 최종 점화자는 강원 2024 프리스타일 스키 종목에 출전하는 이정민 선수다.

성화 점화 이후 케이팝(K-POP) 아티스트와 함께하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평창동에서는 화사와 비와이 등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다. 동계 청소년올림픽은 IOC가 주최하는 올림픽, 패럴림픽과 함께 3대 주요 행사 중 하나다. 이번 대회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며, 총 79개국 1800여 명의 청소년 선수들이 참여한다. 이설화

2024 01 19 ( )

# 江原日報

## “올림픽이란 우주 속 서로의 빛이 되어 함께 빛나는 우리”

02

### 미리보는 개회식

오늘 오후 8시 강릉·평창 개막  
 세계 최초 디지털 성화 선포  
 윤성빈 성화봉송 첫 주자 나서  
 인기 가수·댄스팀 공연 이어져

강릉과 평창에서 동시 개최되는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회식의 주요 내용과 성화 점화 등 메인 이벤트에 관심이 쏠린다.

강원2024는 19일 오후 8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 평창돔에서 동시에 개막한다. 'Let us Shine(우리 함께 빛나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개회식은 강릉에서는 9,000여명, 평창에서는 4,000여명의 관중이 함께한다.

대회 시작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에 이어 진행되는 첫 공연은 '스트리트 댄스 걸스 파이터1' 우승팀 턴즈가 맡았다. 이어 앰비규어스 댄스 콰터니, 트리플에스, 루네이트가 무대에 오른다.

또 강릉에서는 레퍼 예술 아일랜드와 참모 등이, 평창에서는 트로트 가수 김태연을 비롯해 화사, 비와이, 원미린언, 호라이즌 등이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클라우드 기반 디지털 성화가 올림픽 성화와 함께 점화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점단 LED를 활용한 디지털 성화는 대회 기간 올림픽파크에 설치된 8.6mX2.5mX2.7m 크기의 성화대 위에서 불을 밝힐 예정이다. 조직위는 '아나모픽' 기법을 도입, 눈이 오거나 바람이 부는 등 날씨의 변화에 따라 디지털 성화의

색상과 배경이 변화도록 했다. 성화 봉송 첫 주자로 '2018평창동계올림픽' 스키타론 금메달리스트 윤성빈이 나서며 쇼트트랙 지적발달장애 부문 유망주 박하은·가은 자매, '2014소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종목 금메달리스트 박승회를 거쳐 이번 대회에서 프리스타일 스키에 출전하는 이정민이 최종 주자로 나선다. 개회식 총감독은 2018평창동계

올림픽 개회식을 연출했던 양정웅 감독이 맡았다. 그는 이번 개회식에 화려함보다는 청소년만의 역동성을 담았다.

양정웅 감독은 “거대한 우주 속에서 청소년들이 주인공이고 빛나는 존재란 내용을 담겠다”며 “우주라는 공간이 가진 여백을 시작이고 아름다운 장면으로 연출했다”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류호준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2

## 시상대 국가·치킨·포상·연합팀 경기 '없는 올림픽'

<國歌>

### 청소년올림픽 이색 포인트

청소년 올림픽과 올림픽의 가장 큰 차이점이 나이 제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인 것은 흔히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외에도 다른 점이 또 있을까. 본지는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이색 포인트를 소개한다.

■**시상식에 국가 아닌 올림픽 찬가만**  
 청소년올림픽에서는 시상식에서 메달리스트의 국가를 들을 수 없다. 경기에서 우열을 가리는 것보다 스포츠를 통해 전 세계 청소년들이 화합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이다.

■**우열 가리는 성인올림픽과 차별화**  
 세계 청소년 화합·기량 발전 초점 크로스컨트리 혼성 계주 등 신설

■**병역·연금 점수 혜택 없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성인 올림픽에서 3위 이내에 들면 군면제 병역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연금 점수에서 금메달은 90점, 은메달은 70점, 동메달은 40점이 주어진다. 하지만 청소년 올림픽은 대회 취지에 따라 위와 같은 혜택이 없다.

■**선수촌 식당에 치킨이 없다**

조직위에 따르면 강원2024 대회기간 선수단에 제공할 메뉴는 100여가지다. 선수단이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식, 서양식, 할랄식, 비건식 등 다양한 메뉴가 구성됐다. 하지만 이 중에 치킨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직위에 따르면 식단을 구성할 때 IOC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치킨이 영양분이 골고루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빠졌다.

■**강원2024만의 이색 포인트는**  
 이 밖에 강원2024만의 이색 포인트는 '연합국가팀' 경기가 없는 첫 동계 청소년올림픽이라는 점이다. 연합국가팀 경기는 말 그대로 복수의 서로 다른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한 팀을 구성해 메달을 다투는 것으로 동계 청소년올림픽에서만 볼 수 있었다. 2012년 초대 대회부터 2020년 로잔 대회까지 3회 연속 NOC 연합팀을 위한 종목이 있었지만, 이번 강원2024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선수들의 대회 참가보다는 장차 성인 동계 올림픽 무대를 장식할 유망주들의 기량 발전에 초점을 맞춰 연합국가팀 경기를 배정하지 않았다.

대신 혼성경기가 추가됐다. 크로스컨트리 스키 혼성 계주 경기가 신설됐고 혼성 노르딕 복합 단체 경기와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1500m 개인 경주가 처음으로 열린다. 심예섭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3

## 김 지사 올림픽 일정 돌입... 각국에 강원 홍보

오늘 개막식 지방정부대표단 환담  
주한 영국·유럽연합 대사 면담도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김진태 도지사가 해외 지방정부대표단과의 만찬을 시작으로 올림픽 일정에 돌입했다.

김 지사는 18일 강릉시 세인트존스 바부다홀에서 '해외자매·우호도시 정부대표단 환영만찬'을 가졌다.

만찬에는 일본 돗토리현·도야마현 과중국지린성·안후이성, 캐나다 알버타주, 몽골 튜브도 등 6개 해외 지방정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몽흐바타르 뎀베렐 몽골튜브도지사 와 요코타 미카 일본 도야마현 부지사 등 각 지방정부 단체장·부단체장, 고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만찬장에는 강원도 홍보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환영사와 축사 등이 진행됐다. 환영사와 축사는 각각 김지

사와 몽흐바타르 뎀베렐 몽골 튜브도 지사가 했다.

김 지사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리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의미를 강조하며 각 지방정부의 관심을 당부했다.

강원도는 지방정부 대표단에게 올림픽 마스코트인 몽초인형과 배지, 모자 등 기념품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개막식인 19일 지방정부 대표단과 환담을 갖는다. 일본 도야마현 대표단을 시작으로 타마라 모취니 주한 캐나다 대사, 필립 베르투 주한 프랑스 대사와 교류를 다진다.

정부 부처장과도 공식 일정을 소화한다. 송미령 농림식품부 장관은 이날 오후 김 지사와 강릉 올림픽파크에 조성된 한식 홍보관을 찾는다.

제임스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와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20일과 27일 강원도를 찾아 김 지사를 면담한다.

김덕형 duckbro@kado.net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3



'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해외자매 우호도시 정부 대표단 환영행사가 강릉 세인트존스호텔에서 김진태 도지사, 몽흐바타르 뎀베렐 몽골튜브도지사, 요코타미카 일본 도야마현 부지사, 자매도시 관계자(일본 돗토리현, 중국지린성, 중국안후이성, 캐나다 알버타주), 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정호

2024 01 19 ( )

# 강원도민일보

04

## 스포츠로 밝힌 '희망의 빛' 전쟁 아픔 이겨내고 꿈 펼친다

우크라이나 대표팀 입국 결의 다짐  
전쟁 속 재기 기회 얻어 응원행렬  
강릉지역 주민 목도리 선물 '환영'  
전세계 선수들과 교류·체험 만끽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의 고통을 2년째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과 자국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선수 44명을 포함한 코치·대회 관계자들로 구성된 우크라이나 대표팀은 입국 절차를 모두 마치고 지난 17일 공식 미팅을 시작으로 결의를 다졌다.

특히 전쟁으로 인해 선수 생활에 위기를 겪다가 재기의 기회를 얻은 선수들도 있어 응원이 쏟아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선수 중에서는 루지 종목



지난 달 진행된 강원2024 대표팀 출정식에서 김형태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가 대표팀을 격려하고 있다.

출처:주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

선수 9명과 코치 2명이 지난 14일 강릉 선수촌에 제일 먼저 도착했다. 전쟁의 참화를 이겨내며 훈련한 선수들이 선수촌에 입촌하

자 강릉 지역 주민들이 태극기

가 새겨진 하얀 목도리를 선물해 눈길을 끌었다.

주민들은 선수단 목에 직접 목도리를 둘러주며 환영의 인사를 건네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U-20 세계선수권 동메달리스트인 아로슬라프 라브레뉴크 등 스켈레톤 대표팀도 훈련에 들어갔다. 이어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바이애슬론, 스키점프 종목 선수들도 16일 선수촌에 합류했다. 이들은 훈련과 회의 이외에도 선수촌 안에 마

련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 다른 나라 선수들과 교류하면서 배지 등을 교환하기도 했다. 토마스 바흐 위원장과 인사하는 모습이나 선수촌 내 식사, 포토부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 등도 눈길을 끈다.

전쟁 발발 이후 선수 생활을 접을 뻔했던 피겨 스케이팅 종목 댄스 듀오 소피아 레쿠노바와 데니스 페디안킨도 출전 준비를 마쳤다. 지난 여름 출전권을 따낸 이들에 대해 우크라이나팀은 "전

쟁 때문에 중단될 뻔했던 이들의 커리어에 너무나 놀라운 기회였기에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페디안킨은 "놀라운 기회를 얻었다. 큰 대회에 우크라이나를 대표해 출전하게 되어 큰 영광"이라고 했다. 레쿠노바는 마스크를 뭉치듯 휴대폰 배경화면으로 설정하기도 했다. 그는 "여름에 설정해 두고 매일 아침 일어나 뭉치 사진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다짐을 새겼다"고 했다.

우크라이나팀은 이차림 강원2024를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와 선수 소개, 현장 사진, 영상 등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알리고 있다. 스포츠 및 자국 팬들과 가장 활발히 소통하는 모습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올림픽위원회가 파트너사들과 함께 준비한 선물 이벤트다. 후원사를 팔로우하고 유소년팀을 응원하는 소망 메시지를 적으면 대표팀이 직접 선정, 가방과 선수들의 사인 티셔츠 등을 선물할 예정이다.

앞서 김형태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도 지난 달 우크라이나 올림픽위원회가 현지에서 주최한 '2024년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선수단 출정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었다. 김여진

▶ 전쟁 발발 이후 커리어의 위기를 맞았다가 다시 출전하게 된 우크라이나 피겨스케이팅팀의 소피아 레쿠노바(사진 왼쪽)와 데니스 페디안킨 듀오.



# 江原日報

2024 01 19 ( )

02

## 기후위기 전시부터 국악·현대무용 만남까지... 예술로 하나 된다

### 문화행사 A to Z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9일 화려하게 개막한다. 오는 2월1일까지 빙상 종목 외에도 다채로운 전시·공연이 쉴 틈 없이 펼쳐지는 가운데 놀

치면 후회할 문화 행사를 소개한다.

먼저 강원2024의 주인공인 '청소년'이 보다 더 즐겁게 올림픽을 즐길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전시가 경기 기간 평창 대관령트레닝센터에서 펼쳐진다. '미래로 가는 디지털 강원'을 주제로 한 전시는 문화재를 의인화 한 문화재 요정들과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고, AI거북과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특히 전시장에 설치된 작품 속 QR코드를 스캔하면 즉석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어 관람의 재미를 더한다.

세계적인 문제로 자리 잡은 '기후위기'를 타이틀로 한 전시는 강릉 경포해변에서 진행된다. 바닷가를 배경으로 지속 가능성에 대해 논하며,

훗날 미래 세대를 위해 모두가 지구를 지키기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기회의 장까지 마련한다. 장애, 비장애의 경계를 허무는 전시도 주목된다.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강릉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전시는 개인의 작품 세계를 엿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아닌 디지털 화면 속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NFT 작품도 소개된다.

강원2024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는 다채로운 공연도 마련됐다. 23일 열리는 국립현대무용단의 '힘숨'은 스트리트댄스와 국악, 현대무용의 협업을 통해 올림픽의 화합 정신을 되새긴다. 이경은 안무가의 무대 '브레이킹'은 한계를 넘어 저마다의 리

듬과 개성으로 세상의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게 한다. 정철인 안무가는 무대 '비보호'를 펼치며, 규칙과 경계를 허무는 청소년들의 도전적인 사고를 응원한다.

27일에는 국립오페라단과 함께하는 '오페라여행'이 대회에 열기를 더한다. 흥겨운 왈츠풍 오페라 '박쥐' 서곡으로 막을 올리는 공연은 '유쾌한 미망인', '아이디' 등 한눈썹 들어본 친숙한 아리아로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는다. 31일 공연되는 국립발레단의 '해설이 있는 전막발레 해적'은 클래식 발레의 대표작 '해적'에 해석을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든다.

강원2024취재단=김민희·김오미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4

## 루키에서 챔피언 등극 '청소년 올림픽' 길을 닦다

## ZOOM IN - 강원2024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미래의 동계 스포츠 스타를 배출하는 등용문으로 빛을 발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운영하는 올림픽닷컴은 동계청소년올림픽을 거처간 동계올림픽 챔피언을 소개,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에 출전하는 청소년 선수들에게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동계올림픽 챔피언은 페트라 블로바(28·슬로바키아), 클로이 김(23·미국), 에일린 구(20·미국) 등 3명의 선수다.

## ■ 청소년올림픽 스타 '페트라 블로바'

페트라 블로바는 '2012인스부르크 동계청소년올림픽' 알파인스키 여자회전(slalom·슬라롬)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한 선수다.

청소년 올림픽 성과에 힘입어 그는 '2018평창 동계올림픽' 국가대표로 활약했고,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선 시니어 선수로써 다시 올림픽 시상대 정상에 올랐다. 1993년 체코와 분리된 슬로바키아에 알파인스키 선수로는 최초로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쾌거였다. 또 지난해 12월 열린 '2023-2024시즌 FIS알파인 월드컵' 여자회전 경기에선 '스키 요정', '알파인 세계 최강'으로 꼽히는 미국의 미카엘라 시프린 선수를 제치고 우승하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 ■ 하프파이프 역사를 만든 '클로이 김'

4살 무렵 캘리포니아에서 처음 스노보드를 접한 클로이 김은 재능부터 남달랐다.

'2016릴레함메르 동계청소년올림픽'에서 데뷔한 그는 하프파이프와 슬로프스타일에서 두 개의 금메달을 획득하며 유스올림픽 챔피언이 됐다.

이러한 기량은 2년 후에 열린 '2018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빛을 냈다. 17살이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클로이 김은 다시 한 번 금메달을 목에 걸며 최연소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한 여자 스노보드 선수란 타이틀을

거머쥐었고, 또 4년 뒤인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스노보드 여자자프파이프 정상에 올라 최초 올림픽 2연패를 달성했다. 이번 2024 강원대회에선 지난해 1월 미국의 익스트림 스포츠대회 X게임 슈퍼파이프 부문에서 역대 최연소로 정상에 오른 차세대 스타, 최가온(세화여중) 선수가 클로이 김의 뒤를 이을 선수로 꼽히고 있어 활약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프리스타일 스키의 미래 '에일린 구'

에일린 구는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상징이 되기 전, '2020로잔 동계청소년올림픽'의 샛별이었다.

2020로잔 대회에서 하프파이프와 빅에어 금메달·슬로프스타일은 메달을 획득하며 '신성 등장'을 알린 그는 지난 '2022베이징 동계올림픽' 대회에서도 하프파이프·빅에어 금메달·슬로프스타일은 메달을 차지,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회에 출전한 세 종목 모두에서 메달을 획득한 최초의 올림픽 루키이자, 프리스타일 스키 최연소 올림픽 챔피언이기도 하다.

에일린 구는 현재 다양한 올림픽 경험을 바탕으로, 2024 강원대회에 출전하는 청소년 선수들에게 영감을 주는 멘토로서의 여정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소셜미디어를 통해 수백만 명의 팔로워들에게 대회를 홍보하며 국제적인 관심을 끌어올리는데에도 매진하고 있다.



사진 위에서부터 페트라 블로바, 클로이 김, 에일린 구 선수.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07

## 강원 경제계 올림픽 붐업 조성 뚝뚝 뭉쳤다

기관·협회 등 단체 관람권 예매 온라인 배너 게시 등 홍보 앞장 장애인 대상 교통·식사 제공도

‘2024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가 개막해 강원특별자치도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 가운데 도내 경제 유관 기관 및 협·단체가 응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식은 19일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과 평창돔에서 열린다. 본격적으로 전 세계인들의 축제가 시작돼 도민을 비롯

한 세계인들의 큰 관심을 사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보다 열기가 덜하다는 지적도 제기돼 강원지역 경제 유관기관, 협·단체들은 올림픽 붐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응원 및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18일 분지 취재 결과 농협중앙회 강원본부(본부장 김경록)는 이번 올림픽 기간 티켓 예매를 일찍 마치고, 스피드스케이팅, 쇼트트랙 등 2경기에 100여 명이 관람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강원 세계산림엑스포 당시 전직원이 현장을 방문했던 강원테크노파크(원장 허장현)는 이번 강원대회에도 전직원이 경기 관람을 계획 중이다. 강원신용보증

재단(이사장 김기선)은 오는 24-25일 각각 41명, 35명의 임·직원들이 응원에 나선다. 재단 업무에 지장 없이, 최대한 많은 수의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동안 방문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강원조달청(청장 이병철)은 대회 성공개최와 열기 확산을 위해 앞장섰다. 조달청 국가중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및 홈페이지에 올림픽 홍보 영상과 리플릿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배너를 게시했다. 또 오는 24일 직원들이 대회 현장을 직접 찾았을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이극상)에서는 임직원들이 올림픽을 관람, 응원하고 지역 소상공인 경

기 회복을 위해 나선다.  
강원유통업협회(회장 이선희)도 회원사들에게 올림픽 관람·응원, 홍보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하고 회원사들이 관람·응원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융합강원연합회(회장 최호림) 역시 회원사들이 강원지역 소비심리·경기 회복과 강원대회 붐업을 위해 관람에 나설 계획이다. 강원경제단체연합회(회장 이금선)는 소외되는 강원특별자치도민 없이 모두가 올림픽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관람을 희망하는 도내 장애인 관련 단체가 원활한 관람을 할 수 있게 교통편, 식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우진·황선우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12

## “강릉에 오신 선수단·관광객 환영합니다”

GANGWON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주민·봉사단체·상인 등 동참 현수막 걸고 손님맞이 한창 “개최지서 좋은 추억 남기길”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지인 강릉지역에서는 올림픽 선수단과 관광객들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내걸리는 등 반가운 마음으로 맞이하고 있다.  
18일 개최식이 열리는 강릉 스피드스케이팅장과 주요 경기장 부근을 비롯해 문화공연이 열리는 강릉아트센터, 선수촌인 강릉원주대 등 인근에는 선수단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일부 내걸렸다. 강릉의 교통관문이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K정나눔’ 회원들은 최근 선수촌인 강릉원주대를 방문, 해외 선수들에게 태극기 표장이 붙어있는 흰색 목도리를 선물하며 환영인사를 건넸다.  
KTX 강릉역 내·외부에는 마스크트멍초조형물이 설치돼 방문객들을 반기고 있다.  
강문해변 인근에 위치한 A갈비찜 가게는 입구에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 방문을 환영합니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기쁜 마음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하고 있다. 또 지역 내 핫

플레이스인 초당동순두부마을 내 B 짬뽕순두부 가게 입구에도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선수단여러분 환영합니다’라는 내용의 환영 현수막이 걸려있다.  
앞서 지역 봉사단체인 ‘사단법인 K정나눔’은 지난 15일부터 선수촌인 강릉원주대를 방문해 지역 봉사자

들(강릉중앙교회, 도 사회복지관협회, 강릉시 자원봉사센터 등)이 손수 뜨개질로 만든 털목도리를 기념 선물로 전달하고 있다. 목도리는 흰눈을 상징하는 하얀색 털실로 포근함을 더했으며, 태극기 표장이 붙어있어 올림픽 개최지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이와함께 강릉시와 경포환경 참여연대 등 지역 내 봉사단체들은 올림픽 기간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을 위해 시설 점검 및 환경정비 활동을 펼쳤다.  
지역 주민들은 “2018동계올림픽 이후 꼬박 6년만에 전세계 해외 선수들이 강릉을 다시 찾아와 너무 반갑다”며 “강릉에 머무는 동안 올림픽 개최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갔으면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연재

# 강원도민일보

## 원주시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본격 행보

원 시장 브리핑서 공모 도전장  
판부면 1107야공단 부지 제안  
수도권 근접·교통망 장점 강조

원주시가 정부의 태릉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 부지 공모에 도전장을 냈다.

원강수 시장은 18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갖고 “50년간 지역개발 걸림돌이었던 판부면 서곡리 구 1107야공단 군부대 부지를 국제스

케이트장 건립 예정지로 제안한다”며 “스케이트장 유치로 스포츠 공원을 조성, 시민 품에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시는 수도권과 40분 거리의 최적의 입지조건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미 KTX역 3곳, 고속도로와 국도 각 3개 노선, 원주공항 등 우수한 광역 교통망을 갖췄고 여주~원주 복선전철 개통으로 선수들의 훈련장 접근 시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내 유일 국제올림픽위원회 연구센터인 원주연세의료원 등 우수한 의

료 인프라, 선수들이 훈련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는 여러 대학과 다양한 훈련 인프라를 갖춘 점도 경쟁력으로 꼽았다. 특히 구 1107야공단 부지는 오염 토양 복원작업이 막바지에 있어 빠른 시일 내 활용이 가능한 점, 해당 부지까지 상하수도 시설이 이미 연결돼 있고 평지라 토목공사 없이 기반 시설 구축 소요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기에 백운산으로 둘러싸인 부지 일대 자연 환경도 유치 강점으로 제시했다.

시는 빙상스포츠 문화자산 구축을

위해 이번 유치전에 뛰어 들었다. 스케이트장 유치를 시작으로 향후 빙상 실업팀 창단, 초·중·고 육성 시스템 구축 등을 검토하는 등 시를 빙상도시로 키워나간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인접 도시와 함께 각종 국제대회를 유치하고, 강릉·평창과 연계한 동계스포츠 벨트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원강수 시장은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춘 원주는 수도권과 비교해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시가 가진 많은 강점을 부각시켜 대한체육회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민

# 강원도민일보

## 시 바이오 국가산단·스포츠타운 현안사업 속도

세계지원·규제특례 등 전략수립  
“기업유치, 기회발전특구 필수적”

민선 8기 강릉시의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용역이 잇따라 착수,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강릉 기회발전특구 지정 전략수립 용역과 강릉시 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 수립,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타당성 조사 용역에 대한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 중 기회발전특구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에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계·재정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시는 구정면 금광리 일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일반산업단지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시는 파격적인 세계 지원과 재정금융 지원으로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전략수립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첨단소재 산업육성을 위한 환경분석과 방향성, 국·내외 기업유치 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시는 또 강릉을 스포츠 도시로 성

장시킬 수 있도록 종합스포츠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천동 산 139 일대에 조성될 스포츠타운은 축구전용경기장과 보조경기장, 야구장, 파크골프장, 실내체육관, 테니스장 등 복합적인 생활체육 시설을 갖춰 각종 국제대회와 전시훈련, 시민여가 선용 공간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용역에는 각종 스포츠 시설 계획을 바탕으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는 등 사업 토대를 마련한다.

시 관계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단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쳐 반드시 이뤄야 할 사업”이라며 “미래 강릉의 비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용역 등 사업이 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성배

# 강원도민일보

## 삼척지역 4곳 생활문화센터 건립 박차

남양동·교동·정라동·도계읍  
지역문화 활성화 주민 소통공간  
152억여원 투입 정주여건 개선

민선 8기 삼척시가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한 정주여건 등 개선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생활문화센터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주목된다.

시는 현재 남양동 어울림플라자와

교동 국민체육문화센터, 정라동 행정복지센터, 도계읍 삼척복합문화센터 등 4곳에 각각 생활문화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생활문화센터 2곳은 공사가 한창 진행중이고, 나머지 2곳은 조만간 착공한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 31억원 등 모두 152억2500만원으로, 각 생활문화센터마다 12억~52억원까지 다양하게 투입된다.

이 가운데 어울림플라자와 정라동 행정복지센터내 생활문화센터는 올해 중 완공되고, 나머지는 내년 이후

부터 본격 운영된다.

생활문화센터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다양한 예술 및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시민들과 문화예술단체, 동호인들의 지역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이다.

특히 문화예술활동을 희망하는 개인과 동호인 등을 위한 연습 및 발표 공간을 비롯해 지역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춰 시민 스스로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공

간 및 역할 등이 기대된다. 시는 생활문화센터가 시민들의 생활문화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의 생활 의제를 담은 소통의 공간으로 활용되기 위해 체계적인 운영 방안 등을 고심하고 있다.

삼척시관계자는 "생활문화시설을 대폭 확충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통한 지역의 문화예술적 가치 및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정민 koo@kado.net

# 강원도민일보

## 동해시보훈복지회관 신축 국비 추가 확보 '탄력'

공정률 33%... 8월 개관 목표 속도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던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의 숙원사업, '동해시보훈복지회관 건립사업'이 국비 추가 확보로 숨통이 트이면서 8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33%의 공정률을 보이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동해시는 지난해 4월 특별교부세 10억원 등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64억여원의 사업비를 들여 용정동 4-9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715.7㎡ 규모의 보훈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공사에 난항을 겪자 시는 지난해 7월 시를 방문한 김찬규 강원동부보훈지청장과 보훈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한 결과, 12월 국·도비 8억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됐다. 사업비 추가 확보로 탄력이 붙은 신축공사에는 총 72억여원이 투입돼 보훈단체가 이용할 수 있는 단체별 사무실과 프로그램실·대회의실을 비롯해 건강관리

실·열린카페 등 다양한 복지·편의시설 등이 갖춰지게 된다. 현재 법면 정리와 진입로를 확보하고 기초공사에 들어가는 등 공정률 33%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규언 시장과 사업부서 관계자들은 신축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향후 공사 일정·방향을 논의하는 등 현장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인수

# 江原日報

## 국보 수마노탑 ‘낙서 테러’ 몸살

표면 곳곳 한글·한자 훼손  
정암사 “CCTV도 무소용”  
관광 명소도 피해 잇따라  
문화재청 긴급점검 나서



◇국보 수마노탑 표면에 낙서가 가득하다.

최근 서울 경복궁과 지하철에 잇따라 낙서 테러가 벌어진 가운데 강원지역 국보와 명소 또한 관광객의 무분별한 낙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정선군 고한읍 정암사에 위치한 국보 제332호 수마노탑. 2020년 6월 25일부터 국보로 지정됐지만 탑 표면 곳곳에서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거나 한자로 적혀진 관광객들의 낙서 흔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정암사 관계자는 “낙서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CCTV

를 설치했으나 수시 확인이 불가해 적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도심 속 관광 명소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18일 찾은 옛 강촌역 피암터 널에는 옥설이 포함된 낙서가 곳곳에 있었고 10년 넘게 방치된 낙서들이 이끼와 곰팡이와 섞여 흉물이 됐다. 인제 자작나무숲은 날카로운 도구를 이용해 나무 표면에 낙서를 새기는 방문객이 속출해 인제국유림관리

소가 수시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정동진역에 위치한 시비(詩碑)에도 동해안을 찾은 연인과 관광객들의 낙서로 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매주 점검과 청소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국가지정 문화재에 낙서를 하는 경우 원상 복구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하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공공시설에 낙서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도 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지자체와 연계해 다음 달까지 낙서 훼손에 취약할 것으로 우려되는 문화유산 등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신고 포상금 제도 등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겸기자

# 江原日報

## 원주지역 아동·어린이 인프라 확충

원스톱 지원센터 조성  
복합 체험관 연내 준공

【원주】원주지역 아동·어린이 관련 인프라가 대폭 확충된다. 원주시에 따르면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가 강원원주혁신도시 동부복합체육센터 2층에 조성된다. 정식 개소는 3월로 예정됐다. 도내 첫 공공 아동돌봄 지원 거점공간으로 원주형 아동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양한 아동돌봄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정보 제공이 부족, 종합적인 원스톱 지원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센터는 아동돌봄 관련 지역 인프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침이다. 원주시 최초 공공 어린이도서관도 무실동 1819-1번지 일대에 이달 착공해 연내 준공된다. 중앙근린공원개발주식회사가 87억원을 투자해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 후 원주시에 기부채납한다. 이와 함께 오는 3월 태장1동 행정문화복합센터로 이전해 새롭게 문을 여는 태장도서관은 도내 유일 어린이 체험형 동화구연 특화프로그램 운영 도서관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어린이 특화시설로 혁신도시 내 건립 중인 어린이(가족) 복합 체험관 역시 연내 준공된다.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2024 01 19 ( )

江原日報

04

# 폭설 뒤 한파 예보 ... 변수 떠오른 날씨



비 내리는 선수촌 ... 이동하는 선수들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18일 강릉원주대학교에 마련된 선수촌에서 참가 선수들이 빗속에서 이동하고 있다. 강원2024취재단=권태명기자 kwon80@kwnews.co.kr

## 오늘 개회식 제설·추위 대비 만전 산간지역 5~10cm 대설특보 가능성

속보=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일부터 궂은 날씨(분보 18일자 1면 보도)가 이어지며 기상상황이 성공 개최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개회식 당일인 19일 영동지역에 많은 비와 눈이 예보된 데 이어 23일부터는 급격한 한파가 찾아올 예정이다. 실내 빙상경기장에서 열리는 경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기가 설상 등 야외에서 개최되는 데다 궂은 날씨로 인해 도로가 얼어붙을 가능성도 있어

대회 준비에 비상이 걸렸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금요일인 19일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중·북부동해안 2~7cm, 산지 5~10cm의 눈이 내려 대설특보 가능성이 있겠다”고 예보했다. 23일부터 강릉을 중심으로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강추위도 예상된다. 강릉·속초·동해·삼척·고성·양양 등 동해안 6개 시·군과 태백은 개회식이 개최되는 19일 오후에도 눈과 비의 영향권에 들어갈 예정이다. 24일부터는 기온이 더욱 떨어지며 강릉 최저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대회 관계자들은 눈과 비에 대비한 제설작업 준비, 개회식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한파대

응 준비 등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개회식이 열리는 강릉 오벌 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은 실내 시설로 눈과 관계없이 행사 진행이 가능하지만 교통안전에 위해 각 시·군과 협력, 개회식장과 경기장 주변 등의 제설작업을 철저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눈과 비로 인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가능성이 있어 무릎담요도 제공한다. 실외에는 관객들이 추위를 달랠 수 있는 쉼터를 마련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관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편의시설을 준비했고, 평창에서는 따뜻한 음료도 제공받을 수 있다”며 “실외에 천막을 설치해 눈과 비, 추위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원2024취재단=박서화기자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 19

## 대졸자 수도권 이탈 대책 모색을

-5명 중 1명만 남아... 양질 일자리 확대 절실

강원지역 대학 졸업자의 타지역 유출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서 학업을 하고 현지에서 사회 활동을 하는 일반적인 시스템이, 강원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 내 대학은 수도권 일자리를 얻기 위해 잠시 거쳐 가는 통로 역할을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입니다. 이런 추세가 지속한다면 강원 미래 보장하기 힘듭니다. 인재 유출은, 인구 감소라는 표면적인 현상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의 성장을 이끌 동력도 약화합니다. 더 이상의 인재 유출을 막고 대학 졸업생이 지역 발전의 자산이 되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학생 유출 실태는 조옥경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등이 발표한 '지방 대 육성법 이후 지역 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보고서에서 확인됐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강원지역 대학 졸업자 중 수도권 직장에 취업한 '수도권 유입형' 비율이 63.6%로 모든 권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에 이어 2위인 대전·세종·충청권의 58.6%와 비교해도 5%p나 차이가 났습니다.

강원도에 남아 있는 졸업자의 비중은 여전히 낮습니다. 지역에 잔류한 비율은 24.1%로, 5명 중 1명에 그치는

수준입니다. 최근 5년간 강원지역 '수도권 유입형' 비율은 점차 줄었으나 여전히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0%대를 상회합니다.

대졸자 유출 원인은 다양합니다. 타 지역과의 임금 격차가 크게 작용합니다. 지역 잔류형의 경우 취업 후 초임은 월 239만원인 반면, 수도권 유입형은 267만원으로 28만원이나 차이가 벌어 집니다. 또 다른 요인 중 하나는 수도권 등 타지역 고교 출신 도내 대학생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들은 졸업 후 자신의 고향이나 일자리를 찾아 이동합니다. 도내 고교 출신 대학생 비율은 8년 가까이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산업 기반이 취약해 졸업생들이 취업할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 지역에 남고 싶어 도여건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인재 유출을 최소화하는 일은,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숙제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경 탓으로 미루고 대책을 소홀히해서는 안 됩니다. 지자체 차원에서 신산업을 육성해 기업을 유치하는 일이 우선입니다. 공공기관 지역 이전을 본격화하는 등 정부의 역할도 요구됩니다.

## 강원도민일보

2024 01 19 ( )

/ 19

## 환대하는 글로벌축제 한마당으로

-오늘 청소년올림픽 개막식, 준비한 모든 것 펼쳐질

2018년에 이어 미래세대가 펼치는 세계적인 스포츠이벤트 올림픽 개최식이 드디어 오늘(1월 19일) 열립니다. 오후 8시 강릉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 오벌과 평창의 평창돔에서 동시에 불꽃을 밝히며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2018 평창올림픽이 남북 평화를 비롯해 지구촌 '평화'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한 데 이어 79개국 청소년들이 출전한 이번 올림픽은 그 유산 위에서 '인권 존중'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 마당으로 펼쳐집니다. 겨울스포츠 성지인 강원지역사회 각계각층에서 땀으로 준비해 온 모든 것이 유감없이 발휘돼야 할 시작점에 있습니다.

청소년올림픽은 2012년 오스트리아 인스브르크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2년마다 열리며 연륜을 거듭하면서 참가 선수 규모가 커지며 안착했습니다. 2020년 스위스로잔에 이은 강원대회는 79개국에서 1800여명의 선수가 참가했습니다. 2월 1일까지 강릉 평창 정선 횡성 4개 시군에서 경기가 치러집니다. 지난 16일부터 루지와 봅슬레이 등 일부 종목은 예선 경기에 들어갔고, 20일 주말부터 메달 경기가 시작돼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청소년이 주인공인 올림픽인 만큼 방문 청소년들이 온전히 즐길 수 있도록 전시와 특별강습, 토크콘서트, 공연

무대 등이 다채롭게 마련됐습니다. 대회 기획단계부터 청소년들이 참여했고, 청소년서포터즈가 국내·외 홍보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청소년들이 다져온 기량을 최대한 발휘하고, 관람과 응원을 위해 찾은 청소년들이 부대행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돌봐야 합니다. 그동안 관심에서 멀어졌던 겨울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올림픽은 세계적인 스포츠축제인 동시에 강원도의 축제입니다. 각종 경기는 무료 관람이므로 청소년 또래의 관람을 적극 권장하고, 어린 자녀를 둔 가족단위 방문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국내외에서 방문객이 몰리는 기회이므로 경제에 보탬이 되어야 하고, 지속적인 방문효과를 촉진하는 장이어야 합니다. 관광산업이 주력인 강원도 미디어와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으로 호명될 절호의 기회입니다.

무엇보다 선수단과 방문객 모두 만족하고 안전한 대회가 되려면 개막식 당일부터 좋은 평이 나와야 합니다. 조직위를 비롯한 관계기관은 긴장한 가운데 경기 운영, 안내 체계, 방역 안전, 교통과 편의, 봉사 등 전 분야에서 세심한 운영력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 江原日報

2024 01 19 ( )

/ 25

## 동계청소년올림픽 개막, 응원·협력·화합하자

아시아 최초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19일 개막된다. 전 세계 79개국 15세에서 18세까지 남녀 선수 1,803명과 올림픽 패밀리 등 1만5,000여명이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강릉시, 정선군, 횡성군 일원을 찾아 설상, 빙상, 슬라이딩 등 7개 경기, 15개 종목, 81개 세부 종목의 경기에 참여한다. 이번 대회는 세계의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함께할 때 빛나는 우리’를 주제로 화합하고 도전 정신을 키우는 지구촌 종합스포츠 대축제로 ‘어게인 평창’이다. 1988년 서울올림픽과 2002년 한일월드컵,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로 국제사회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던졌던 값진 경험을 토대로 미래 세대 위한 올림픽이 강원특별자치도로 거듭난 평화의 성지에서 펼쳐진다.

**남녀선수·올림픽 패밀리 등 1만5,000여명  
평창군·강릉시·정선군·횡성군 일원 찾아  
도, 세계적 겨울 스포츠 명소로 거듭나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추구하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점화하는 동시에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 낸 강원인들의 자력을 또 과시할 수 있는 기회다.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평창을 처음 세계의 지도 위에 올려놓은 프라하 IOC 총회 이후의 2전 3기의 도전 과정은 한마디로 가시밭길이었다. 이웃 아시아 국가의 견제와 알프스동맹과도 같은 ‘유럽 커넥션’, 그리고 전투공작을 방불케 하는 ‘푸틴 돌발 변수’, 여기에 우리 외교인들의 엇박자 등 악재를 지켜봐왔다. 결국 이러한 낭패가 값진 교훈이 되어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겨울올림픽에

서 한국은 이미 변방을 벗어나 당당한 선진 대열에 올라선 지 오래되었다. 이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 응원하고, 협력하고, 화합할 시간이다. “기회는 폭풍과 같아서 일단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다시 강원도를 세계에 알릴 기회다. 기회는 준비하는 사람의 것이다. 사사로운 이기심이 충돌해 위기를 조장하는 그 어떠한 갈등도 경계하자. 이를 계기로 성공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대회로 평가받고 세계사의 한 페이지에 영예롭게 기록되도록 강원인 모두가 함께 노력하자.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은 안전하게 치러져야 한다. 여기에 특별히 신경을 쏟아야 할 것

이다. 강원인들은 2018평창동계올림픽으로 인해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강원도가 큰 발전을 이루었듯,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이 대회의 가치와 이상을 충실히 구현함과 더불어 강원 발전에 이바지하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무엇보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세계 동계 스포츠의 성지로 확실한 자리매김을 해야 할 것이다.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강원특별자치도를 세계적인 겨울스포츠 명소로 각인시켜야 한다. 천혜의 자연과 완벽한 경기 시설, 여기에 올림픽 홍보효과를 이용해 최고의 겨울 휴양지로 자리 잡아야 한다.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의 지향점이 아니겠는가.

## 江原日報

2024 01 19 ( )

/ 25

## 道 대학 졸업생 유출 전국 최고, 대책 마련해야

도내 대학 졸업생 10명 중 6명은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최근 발표한 '지역인재의 입학 및 취업 실태와 과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도내 일반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는 8,154명이었다. 이 중 수도권 직장에 취업한 '수도권유입형'은 63.6%에 해당하는 5,18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7개 권역 중 가장 높은 수치다. 반면 강원 자치도 내 지역 대학을 졸업해 해당 권역에서 취업하는 '지역잔류형'의 경우 24.1%(1,967명)로 전국 최저 수준을 보였다. 부산·울산·경남(58.4%), 제주권(56.3%), 호남권(53%)의 '지역잔류형' 비중이 50%를 웃돈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만큼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두드러졌다는 의미다. 이처럼 지역의 대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이탈하니 지역은 인재난에 허덕일 수밖에 없다.

지역 대졸자들의 수도권 유출에는 '경제적 보상 차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2021년 기준 도내 대학을 졸업한 취업자들의 초임 임금을 살펴보면 기업이 수도권에 소재한 경우 257만6,528원, 강원권은 244만5,709원을 받았다. 같은 대학을 졸업했어도 수도권 취업자들의 초임 급여가 13만원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급여 차이는 근무 연수에 따라 갈

수록 벌어진다.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이대로 가다가는 청년층 이탈이 가속화되고 이는 곧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게 분명하다.

청년층 유출 원인을 파악해 정교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젊고 우수한 인력이 지역에서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떠나는 현실을 구경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도내 대학 출신 인재가 지역 기업에 취업해 지역의 발전을 책임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 산업을 고도화해 전문 인력을 끌어들이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일자리가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열악한 근무 여건도 대폭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지역 중소기업은 수도권 대기업에 비해 급여가 낮은 데다 복지는 취약한 편이다. 직접적인 임금 인상이 힘들면 세제 혜택 등 간접효과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나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는 젊은이들의 지역 이탈로 연결된다.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몰리는 일극화 현상을 바로잡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유출, 출산율 저하, 지역 소멸, 지역경제 침체 등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